

CJC, 일본에 핸드폰 LCD 소재 공급

Kyocera와 합금소재 코팔 공급계약 체결 ... 가볍고 강도 높은 비철금속

첨단소재 생산기업인 씨제이씨(CJC)가 일본의 휴대폰 생산기업인 Kyocera가 개발한 화면이 2개인 스마트폰 <에코>에 자체 개발한 합금 소재를 공급해 주목된다.

미국의 통신기업 스프린트를 통해 4월17일 출시된 <에코>는 상·하 2개의 화면을 펼치면 최대 7인치의 화면을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듀얼 LCD(Liquid Crystal Display) 스마트폰이다.

CJC는 듀얼 스마트폰의 상·하판 연결을 지지하는 부품인 링크 암(Link Arm)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강도 동합금인 코팔(Coppal)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.

링크 암은 에코의 LCD 화면을 다양하게 배열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부품으로,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가볍고 강도가 뛰어나 외부의 충격에 잘 버티는 비철금속으로 알려졌다.

Kyocera는 처음에 링크 암에 사용할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적합한 코팔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4/21>